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향후 돈육 수입량 변화 전망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최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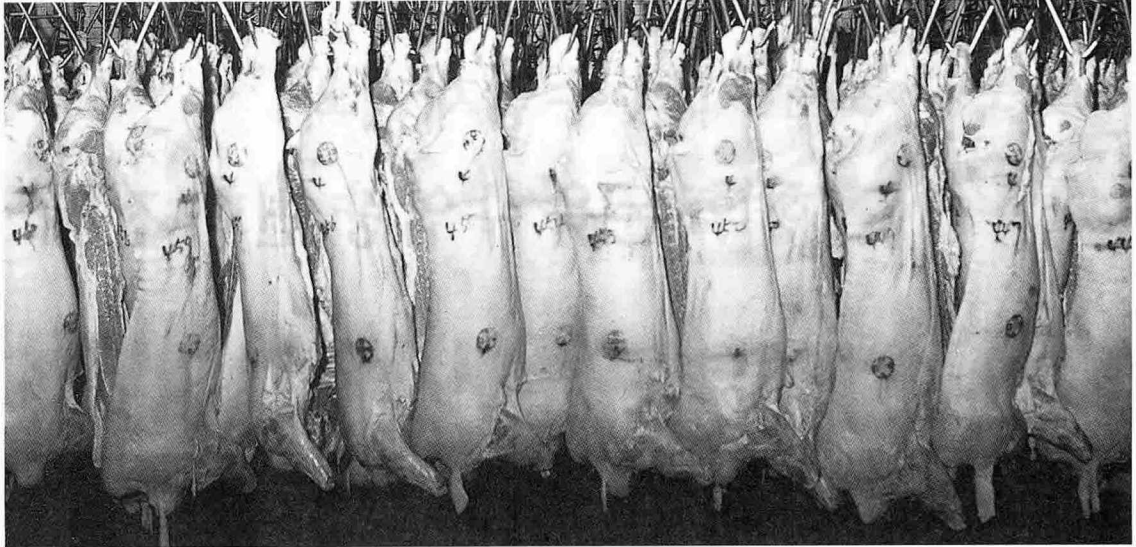
올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함께 한미 FTA 타결로 국내 축산업계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수입되는 쇠고기의 전수 검사를 통해 뼈조각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 조치하여 국내적으로 검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지만, 3월 11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로 예비 승인하면서 두개골과 척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기준으로 하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겠지만 기존의 기준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국제수역사무국이 발표한 내용이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회원국 간에는 의무 조항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 수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기구까지 미국을 도와주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시험적으로 수입한 물량이 유통되었고, 이제는 수입업체들의 본격적인 수입재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돼지고기 대체재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4월말부터 일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면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 와 있고 과거에 30만톤 가까이 수입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시장 반응은 어떨까? 하는 것이 우리 양돈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겠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으로 전환되어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현



오 명 호 마케팅실장  
대상팜스코(주)



▲ 일반 양돈장에서는 매년 2/4분기를 수익성이 증가하는 계절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올해 돈가는 금년에는 여러가지 시장 악재 즉, 경기 위축, 소비 침체,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돈육의 소비 감소와 더불어 수입 돈육량의 증가로 인하여 낮은 돈가를 형성하여 왔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상황을 미국이 국내 쇠고기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밀어 붙일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호주산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경쟁력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차별화 된 한우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는 단기적 파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서민형 식육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체재로써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미산 쇠고기 구입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돈육과 수입 쇠

고기가 대체재로써 확실하게 자리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겠다

### 3. 폭증하는 수입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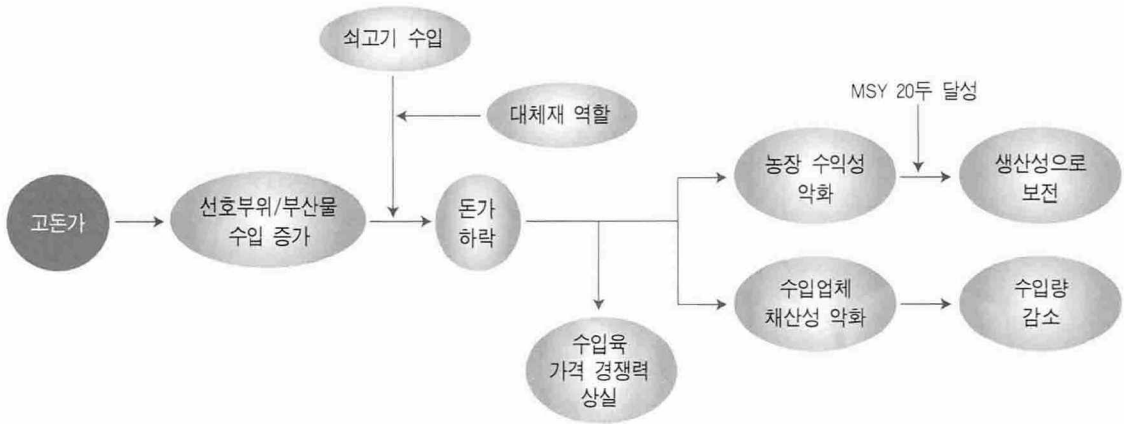
매년 날이 따뜻해 지는 봄이 되면 돈가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양돈 농가에서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돈가 상승 요인을 제공하였지만 돼지고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실제 시장 가격은 공급적 측면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돈육 수입 증가량(〈표 1〉 참조)에서

<표 1> 최근 3년간 돈육 수입 증가량 및 1/4분기 수입량 비교

(단위 : 톤)

년도별 전체 수입량			구 분	1월	2월	3월	계	전년대비
연 도	수 입 량	전년대비						
'04년	108,832	-	'06년	13,185	15,835	19,830	48,850	-
'05년	173,556	159%	'07년	28,320	24,333	29,450	82,603	169%
'06년	210,555	121%						



<그림 1> 쇠고기 수입에 따른 돈육 수입량 예측 모습도

보듯이 실로 어마어마한 증가율(2006년은 2004년 대비 거의 200%)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2007년 1/4분기의 수입량은 수입량이 최고로 많았던 2006년 1/4분기보다도 훨씬 169% 증가한 82,000여톤의 돈육이 수입되어 이제는 돈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양돈장에서는 매년 2/4분기를 수익성이 증가하는 계절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올해 돈가는 금년에는 여러가지 시장 악재 즉, 경기 위축, 소비 침체,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돈육의 소비 감소와 더불어 수입 돈육량의 증가로 인하여 낮은 돈가를 형성하여 왔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즉, 전년 대비 국내 도축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돈가가 기대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게 된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이 돈육 수입량 부분이라고 하겠다.

#### 4. 쇠고기 수입에 따른 돈육 수입전망

그렇다면 향후 돈육의 수입량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까?

올해 돈육 수입량을 보통 23만 톤까지 그 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실제 미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식도를 가정하여 볼 수 있으며, 수입 쇠고기의 대체 수요 효과로 돈가가 하락된다면 수입업체의 채산성 악화란 부분과 맞물려 그 돈육 수입량이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도 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국내 양돈 산업이 슬렁이고 있다. 또한 식육 시장에서는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는 돼지고기 수입량이 위 모식도와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양질의 브랜드 육을 생산하여 '신토불이'의 맛을 강조하고, 양돈 생산성을 최소한 MSY 20두 이상으로 끌어올려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양돈**